

남원시 국비 3614억 '역대 최다'

전년비 407억 증가... 각종 공모사업 선정·조직적 예산 활동 성과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통합하천·전기열차 등 현안사업 '속도'

남원시의 2023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내년도 각종 현안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의 올해 정부예산은 총 3614억원으로 전년대비 407억원(13%)이 증가했다.

이 중 중점 확보 대상사업으로 확보한 국비는 1769억원으로 올해 대비 64억원(3.7%)이 증가한 수치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재정기조가 건전재정으로 전환되고 국회단계 정부예산 총지출 규모 순감 등 순탄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이루어낸 값진 성과다.

시의 이 같은 성과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세중사무소 기능을 확대해 '국가예산전략센터'를 개소하고 매주 부처와 국회 출장을 병행했던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의 노력과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남원시의 정부예산 증가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총사업비 기준 673억원이 늘어났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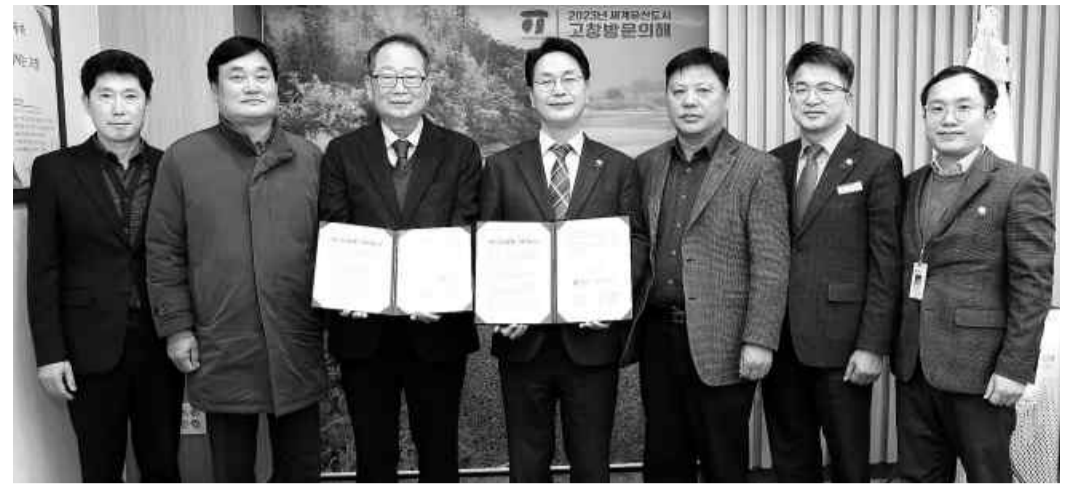
주요 핵심사업 관련 예산으로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35억원(105억원)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R&D) 72억원(279억원) ▲2023 FAI 월드 드래이빙 챔피언십 3억원(30억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5억

원(490억원)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97억원)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489억원) ▲국지도 37호선(인월-아영) 2차로 확장 및 개량사업 2억원(453억원) ▲대곡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1억원(406억원) ▲주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8000만원(396억원) 등이 확보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선 8기 첫 국가예산 확보인 만큼 남원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이었지만 한 마음 한뜻으로 힘을 써준 이호영 의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노력의 결과로 확보한 국가예산이 당연한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남원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심덕섭(왼쪽 네번째) 고창군수가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안분(세번째) 서울시니어스타워(주) 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 우수 농특산품 대도시 판로 확대

군-서울시니어스타워 협약 1년 1억5000만원 쌀 공급

고창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서울시니어스타워(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니어스타워는 내년 1월부터 고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고품질 쌀(한결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종대)을 월 275포(연 1억 5000만원 상당) 구매하기로 했다.

또 인천 송도병원 등 전국 산하기관에 고창 친환경 쌀이 공급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군은 고창 농산물 구매 확대를 위해 입주민에 홍보하고,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관리, 생산농가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다.

서울시니어스타워는 국내 프리미엄 실버타운을 선도하는 업체로 석정온천 고창타워를 비롯해 서울타워, 강서타워 등 총 6개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현재 1600세대, 2100여명이 입주해 있다.

고창군은 향후 입주민을 대상으로 쌀 이외에도 고창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홍보, 판매를 위해 서울시니어스타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서울시니어스타워의 지역 상생 일환으로 고창 농산물 구매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군 농산물 홍보 판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다 함께 돌봄센터' 2호점 개소 유희공간 활용 마을단위 설치

정읍시가 최근 지역돌봄 체계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읍시 다 함께 돌봄센터 2호점(너랑 나랑)'을 개소했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지역 내 학교 돌봄교실만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단위에 설치하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아동복지시설이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면사무소 등 안전성과 접근성이 매우 높은 유희공간을 활용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센터는 상동(상사5길 16)에 자리한 돌봄센터 2호점은 연면적 90㎡ 규모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해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집중지도실, 주방 등의 시설을 리모델링했다.

아동 정원은 20명으로 센터장과 돌봄교사 2명

이상시 근무하며 아동을 돌본다.

운영시간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돌봄센터는 수요에 따라 야간돌봄 등 일시돌봄도 운영할 계획이며, 초등학생의 안심보호를 중점에 두고 교과 학습지도와 다양한 예체능, 독서프로그램 등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이번 돌봄센터 개소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에 따라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용 정읍시 부시장은 "돌봄센터 개소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에 따라 맞벌이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게 됐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돌봄공간을 제공해 예체능과 숙제,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초등 1년 학생 수 '20명' 교육청, 학급편성기준 확정

울해부두 전북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으로 조정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립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동 27명, 읍 26명, 면 25명으로, 도 교육청은 올해에 도 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1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교실 밀집도 완화를 통한 정상적인 교육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개발지구 등 여유 교실이 부족한 학교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 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학급편성 지침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보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농가 매출 '도우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고창군 출연 연구기관인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관내 농업인과 농식품업체를 윈스톱 지원, 농업인과 기업의 매출 급진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딸기 동결건조 제품을 판매하는 '하하네상콤딸기'는 연구소가 제품기획부터 동결건조 생산조건 확립, 사업자등록 등을 지원했다.

특히 유통전문판매업 허가, 품목제조보고, 영양 성분분석 및 위탁생산, 자가품질검사까지의 전과정을 윈스톱으로도 도왔다.

그 결과 '하하네상콤딸기'는 2017년 최초 6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올해 말 기준 2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어 매년 평균 25% 이상의 급성장상을 이뤘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사랑상품권 내년 1100억 규모 발행

월 100만원 구매 한도·할인율 10%... 지역 경기 부양 기대

남원시가 올해 1100억원 규모의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유형별 발행 규모는 지류형 500억원, 카드·모바일형 600억원이다. 품목 상권과 지역 선순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남원시는 이른바 '3고(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을 고려해 할인율은 종전과 같이 10%를 적용해 판매한다. 월 구매 한도는 개인 100만원으로 유지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월 30만원 이내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은 통합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다.

다만, 추후 예산확보 상황을 고려해 할인율과 개인 구매 한도는 유동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 역의 유출을 막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0억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370억원을 판매했다.

현재 3860여곳에 달하는 가맹점과 지류·모바일형·카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결제방식을 확보한



상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2023년 3.22 ~ 4.19
묘이장 내년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모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